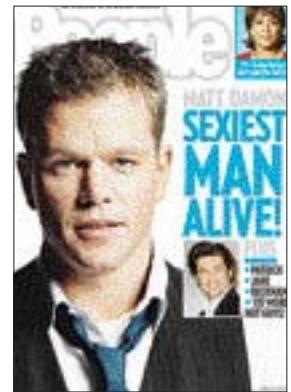


맷 데이먼, 현존 최고의 섹시男

피플誌 선정…재미교포 위 윤니 13위 선정



현준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섹시한 남자로 영화배우 맷 데이먼이 꼽혔다.

미국의 대중잡지인 퍼블리(誌)는 14일 저항할 수 없는 유머감각과 철저히 가족적인 남자라는 점, 가슴을 녹이는 겹손 등을 내세워 맷 데이먼을 올해 최고 섹시 남으로 선정했다.

2위는 국내에서 '미드(미국 드라마) 엘론'을 일으키는데 일부분 기여한 '그레이스 어너티미(Grey's Anatomy)'에서 대리 셰퍼드 역을 맡았던 패트릭 디시(41세), 3위는 여배우 스칼렛 요한슨의 연인으로 더 알려진 영화배우 라이언 레이놀즈(31)가 각각 선정됐다.

이어 브래드 피트, 제임스 매커보이, 조니 텁, 데이브 어네이블, 월 스미스, 하비에르 바르뎀, 쉐마 무어가 4~10위를 차지했다.

특히 재미교포 출신 영화배우인 월 윤리(32)가 13번째 섹시남으로 꼽혀 눈길을 끌었다.

태평도가 특기인 월 윤리는 가수 머라이어 캐리의 뮤직비디오와 영화 '엘렉트라'에서 출연했으며 최근엔 NBC의 '바이오닉 우먼'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피트-줄리 커플, 두바이 인공섬 샀다

브래드 피트와 앤젤리나 줄리 커플이 두바이 해안에 럭셔리타운으로 개발 중인 인공섬을 매입했다.

이들 커플이 사들인 섬은 전 세계 300여 개국의 외형을 닮은 인공섬 군락 중 하나로, 브란델리나 커플은 에티오피아 모양의 섬을 선택했다. 에티오피아는 그들 커플이 두 번째로 입양한 딸 자하라의 모국이다.

AFP는 에미리트투데이 보도를 인용해 이들 커플이 이 섬을 환경 문제를 이유로 사들였지만 선택했으며 사람들에게 자연친화적 삶을 살도록 장려하는 장소로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

두바이 인공섬은 브란델리나 커플 외에도 가수 로드 스튜어트와 억만장자 사업가 리처드 브랜슨 등이 구매했다. 이 섬의 가격은 600만 달러에서 3천600만 달러 선이다.

복지재단 광주 후원회 결식아동돕기 860만원 전달



한국 복지재단 광주 후원회원들은 지난달 28일 춘천마라톤대회에서 '결식아동 돋기 1m 1원 사랑모으기' 캠페인을 벌여 모은 860만원을 15일 오후 한국 복지재단 광주지역본부에 전달했다. 유품부터 박진일 광주·전남 농어민판매조합 이사장, 곽행호(주)해성테크 대표, 정성모 종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공동체팀장, 유길원 한국 복지재단 광주지역 본부장, 신상길 광주후원회 사무국장, 권철한 동일전자정보교 교사.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종화씨 5녀 현주(광주 북구청)양=18일(일) 오전 11시 꿈의 궁전 웨딩홀 5층.

▲김양신(광주 서부경찰서 경리 계장)씨 장남 석준(강진경찰서)군 고광훈(사업)씨 장녀 지나(서부경찰서)양=18일(일) 낮 12시40분에 벌루션 웨딩컨벤션 3층 컨벤션홀.

▲김병순씨 차남 균우(대주건설)군 고석남(광주 남부서 경무과장)씨 장녀 주희(비아초교)양=17일(토) 오후 1시 상록 웨딩홀 본관 3층 무궁화홀.

화촉

▲손사분씨 장남 하성호군 윙숙근씨 장녀 송영화양=18일(일) 오후 1시50분 베깅검웨딩홀 1층 다이아몬드홀.

▲김병순씨 차남 균우(대주건설)군 고석남(광주 남부서 경무과장)씨 장녀 주희(비아초교)양=17일(토) 오후 1시 상록 웨딩홀 본관 3층 무궁화홀.

▲노재숙(광주시내버스사업조합 상임부회장)씨 장남 진영군 남훈기씨 장녀 수연양=17일(토) 오후 1시 10분 상록회관 웨딩홀.

▲안경태씨 장남 병일군 장명수씨 장녀 만덕양=17일(토) 오후 1시 30분 순천시 탑 웨딩홀 1층 다이아몬드홀.

▲정형천(전 광주 서구청 도시국)씨 장남 성준(광주 서구청)군 김

권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국번 없이 1331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

연보조제 및 상담. 문의 363-2240

▲홀트이동복지회 광주이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222-1095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 보호소 무료 상담=아동 일시 보호 원하는 경우.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222-

24시 전화 상담 전국 1588-9191, 광주 228-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여호이동복지회 광주이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227-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652-1366, 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



로더미어 여사 '함평 나비엑스포' 유럽권 홍보대사

<함평 출신-로더미어 전 회장 미망인>

"2008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를 로이터 통신에 소개하는 등 유럽권 홍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함평 출신의 로더미어(58·한국명 이정선) 여사는 내년 4월 열리는 '2008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유럽권 홍보대사에 위촉됐다.

함평에서 태어난 로더미어 여사는 어린 시절 일본을 거쳐 미국 유학 후 영국으로 건너가 로이터통신 전 회장인 로더미어(Rothemere) 자

작(子爵)과 혼인했으며 남편이 사망하자 자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

로더미어 여사는 지난달 31일 고향인 손불면 궁산리 묘동에 자리한 선친 묘소에 들러 참배하고 천연염색 체험장인 민예학당과 2007 대한 민국 국향대전 행사장, 아동복지시설 시온원을 방문했다.

또한 로더미어 여사는 아동복지시설 시온원에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한 뒤 시설아동들의

지속적인 학업지원을 위해 이석형 함평군수와 협의, 선친 이름을 딴 정학재단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는 등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로더미어 여사는 "인구 4만 명의 작은 군이 훌륭한 축제를 개최한 것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국화로 만든 독립문과 애월암, 곤충 등 모형작품 등이 놀랍다"고 말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신의 미각'…최고의 와인 테이스터 영예

<맛 감정사>

■신세계 '와인마이스터' 선정된 광주신세계 0기연 매니저

"가격보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와인이 좋은 와인이죠"

"평소 고객들에게 더 많은 와인 지식을 말씀드리려고 와인 공부와 시음을 꾸준히 한 것이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의 직무능력경연대회인 '올림피아드'에서 와인부문 최고의 명인으로 뽑힌 광주신세계 0기연 매니저(여·30·금당인터넷내셔널)는 "무엇보다도 서울 등 쟁쟁한 와인 전문가들을 누르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이 기쁘다"고 말했다.

이 매니저는 지난 13일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제3회 신세계 직무 올림피아드'에서 '와인마이스터'로 선정돼 와인부문 사내의 최고 명인으로 공인받았다. 신세계백화점은 해마다 정육왕·수산왕·초밥왕 등 분야별 최고 명인을 선발하고 있으며 와인마이스터는 올해 처음

으로 올림피아드 종목에 포함됐다.

올림피아드는 신세계백화점 전국 7개 점포에서 자체 예산을 거쳐 선발된 대표자들끼리 본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와인마이스터부문은 서울 본사에서 선발한 외국 유학과 소믈리에 등 2명의 전문가가 더해져 9명이 불꽃튀는 경합을 벌였다.

"10문제가 출제된 뉴질랜드 방식으로 12명의 각기 다른 와인 가운데 제비뽑기 기록 고른 와인에 대해 설명하는 '입의와인 설명하기', 시음후 와인의 종류를 알아 맞추는 '블라인드 테이스팅' 등 2단계의 실기 테스트를 치렀습니다."

이 매니저는 "이론도 어려웠지만 실기에서 간발의 차이가 승부를 갈랐다"고 밝혔다.

블라인드 테이스팅은 칠레산 까르메네르, 프랑스산 멜론, 미국산 진판넬 등 3종류의 와인에 대해 생산국가와 지역, 빙티지(수확연도), 포도품종, 어울리는 음식 등 5가지 분야로 나눠 평가했다.

"첫 잔을 시음해 보니 향이 '말벡'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고춧가루 냄새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고춧가루 냄새'는 까르메네르라는 후배직원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이 매니저는 나머지 참가자들이 모두 말벡이라고 답할 때 자신은 자신 있게 까르메네르라고 말했다.

25세 때 처음으로 와인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그는 고향인 순천에서 소믈리에 꿈을 꾸웠지만 2천만원을 들어 주3회 서울에서 아카데미 강의를 받아야 하는 제약때문에 소믈리에 대신 와인을 찾았습니다.

"무턱대고 고가의 와인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와인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와인입니다. 가격에 안 치우쳤으면 합니다"



매일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데일리 와인'을 추천해 달라는 말에 그는 "미디엄 바디"로는 프랑스나 호주산, '풀바디(무거운 맛)'로는 칠레와 아르헨티나산의 1~2만원대 좋은 와인이 많다"며 개인적으로는 첫 느낌이 강한 칠레산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기부 천사' 김장훈 '아산상 사회봉사상'

'기부 천사'로 불리는 가수 김장훈이 아산상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동준)이 주는 제19회 아산상 사회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내 아산교육연구관 1층 강당에서 상제와 5천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음반과 공연 수익금 대부분을 기부금으로 쓰는 김

장훈씨의 선행은 기부 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장훈은 새 소망의 집 등 보육시설 세 곳과 후원하는 학생에게 매달 총 1천500만 원을 보내고 있다.

또 사재 1억 원을 털어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버스 꾸미루미를 마련했고,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대략 30억~40억 원을 기부했다.

조선대 첨단부품소재 인력양성사업단

지역사회 공헌 '산학협력 대상' 수상

조선대학교 첨단부품소재 전문인력 양성사업단(단장 차용훈 기계공학 교수·이하 사업단·사진)이 '2007 대한 민국 산학협력 대상'을 수상한다.

사업단은 산학협력 교육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다기능 실무인력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해 지역 사회에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 글로벌로 지역공헌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한국언론인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신문방송연구원 주관, 서울경제·㈔산학연전국협의회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산학협력 대상'은 우수 대학 산학협력 기관을 선정·시상함으로써 지역과 대학, 나아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제정됐다. 조선대를 비롯한 13개 대학 산학협력 기관(지역공연·기술이전·방재 등 8개 부문)이 대상을 받았다.

사업단은 2005년 3월 광주 첨단과학원을 창립해 활동하고 있다.



한편 시상식은 1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인사

◆노동부 ◇팀장급 전보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장 최재구

모집

▲부동산 경·공매 동호회원(무료)

모집=기초부터 협장 담사, 물권·채권 권리분석, 부동산 미래 가치 및 환금성 분석 등. 문의 011-607-4614